

수소산업 (Overweight)

글로벌 정책 지원 효과 시현 시작 독일, 수소 전략 강화 계획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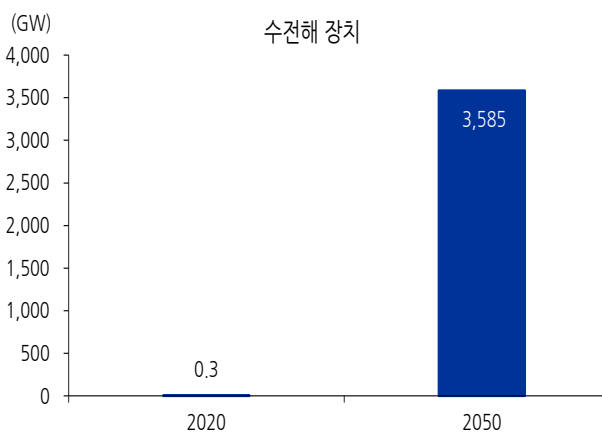
수소 산업 포인트

글로벌 수소 지원 정책이 확정되면서 관련기업들이 수주를 하고, 이를 대비한 투자를 하는 사이클이 시작. 독일은 보조금 지급과 사용 영역을 확대하는 수소 전략 강화 정책 발표 예정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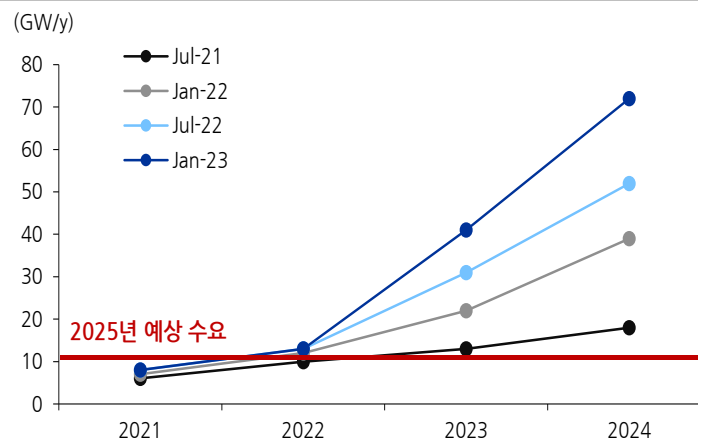
- 수소 대장주 Plug Power, 호주와 유럽에서 잇따른 수전해 설비 수주로 주가 저점 대비 60% 이상 상승
- 수전해 설비 전문 업체 Nucera의 성공적인 상장, Neom 프로젝트향 2GW 수전해 설비 업체로 지정 때문
- 2030년까지 EU, 2천만톤, 미국 1천만톤 그린 수소 생산/수입 목표 달성 위한 시장 형성 단계 진입
- 독일, 수소 전략 강화 계획 조만간 발표 예정. 수전해 설비 목표 상향하고 매년 국가 입찰을 통한 보조금 지급,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 건설, 기존 산업용 외에 교통과 난방 등 전 산업으로 수소 확산시키는 정책 발표 예정
- 국내 수소 관련주들의 해외에서의 사업 결실에 주목: 두산퓨얼셀, SK에코플랜트, 상아프론테크, 일진하이솔루스, 효성첨단소재, 비나텍 등이 관련주

탄소중립 위해 3,000GW 이상 수전해 설비 필요



자료: IEA, 유진투자증권

지속 상향되고 있는 연간 수전해 설비 추정치



자료: IEA,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해외 수소 관련주들 수주 소식에 주가 반등세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유럽, 중동, 호주 등 글로벌 수소 지원 정책 효과에 따른 기업들의 혜택이 시작되고 있다. 대표주인 Plug Power는 호주에서 5MW, 유럽에서 100MW의 PEM 수전해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바닥 대비 60% 이상 상승했다. 중동 NEOM 프로젝트의 알카라인 수전해 설비 공급 업체로 선정된 Nucera는 최근 진행된 IPO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해 시가총액이 3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상장 사기 논란을 일으킨 Nikola도 수소트럭 공급 계약을 BayoTECH과 체결하면서 숏커버링에 따른 단기 주가 상승을 시현했다. Bosch는 수소차와 수소발전용 파워 트레인을 상용화하는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투자 규모를 2026년까지 25억유로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2030년 기준 EU는 2천만톤, 미국은 1천만톤의 그린수소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도표 1. 미국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와 활성화 방안

미국(DOE: 미국 에너지부)	
그린수소 목표	생산량: 2030년 1,000만톤, 2040년 2,000만톤, 2050년 5,000만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10%를 클린수소가 담당할 예정
목표달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수소 생산시 \$3/kg 세액공제 제공(IRA, 관련예산 130억달러) - 클린수소 허브 건설, 기술, 수전해 프로그램 등에 총 95억달러 투자(인프라 부양안) - 2025년까지 수전해, 열변환 등 연구개발 및 시연 촉진(DOE) - 2026년~2029년, GW 규모의 수전해 배치 및 국내 공급망 개발(DOE) - 그린수소 생산 단가 목표: 2026년 2\$/Kg, 2030년 1\$/Kg - 2025년까지 지역허브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시작(DOE) - 2026년~2029년, 효율적인 인프라 구성요소 시연 및 청정수소 네트워크 개발(DOE) 	

자료: DOE, IRA, 유진투자증권

독일, 수소 전략 강화 정책 발표 예정

독일은 2020년에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연정 내에서 의견이 갈려서 확정하지 못했다. 녹색당이 맡고 있는 경제부는 수소사용을 산업, 항공, 상용차, 선박, 백업 전력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해왔고, 자민당이 주도하는 교통부는 위 영역 이외에 교통 부문 전부와 난방 부문 등을 추가하고 모든 산업에 수소 사용을 확대하자는 의견이었다. 빠르면 7월에 확정 발표될 내용은 수소 사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교통부 의견이 채택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주 내용은 1) 2030년 수전해 설비 목표 5GW에서 10GW로 확대 2) 2028년까지 수소전용 파이프라인 1,800km 이상 확보 3) 2028년까지 매년 500MW 수전해 설비 국가 입찰 4) 수소차 충전소 위한 40MW 수전해 설비 펀딩 등이다.

도표 2. 유럽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와 활성화 방안

유럽(EU)	
그린수소 목표	생산량: 2030년까지 1,000 만톤 생산, 1,000 만톤 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17.5GW 수전해 설비 구축(REPowerEU) - REPowerEU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운송, 산업용 수소 사용에 재생가능 수소 할당량 협의 - IPCEI를 통해 수전해, 운송/저장, 활용(수소차)등에 자금 지원 - 수전해, 전략 산업 업종으로 지정 및 2030년 까지 100GW 생산 목표 제시(Net-Zero Industry act) - 450km에 달하는 바르셀로나 - 마르셀로 수송관 수소 수송에 활용(MED9 협의)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을 잇는 수소 수송관 건설 	

자료: EU,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내 수소관련주 투자 매력도 상승

해외 수소관련 대표주들의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국내 관련주들에게도 긍정적이다. 국내 수소관련업체들의 주가는 아직 부진한 편이라서 부담이 덜하기도 하다. 수소 활용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정책지원의 효과가 해외기업들에게 나타나 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해외기업들 또는 해외 정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국내업체들의 숫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수소 전략 강화 안도 수소 관련주 전반에 긍정적이다. 수소의 활용도를 일부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산업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독일의 정책이 정해지면, 이는 EU 전체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소차, 수소발전에 특화된 국내 수소관련주들도 성장할 여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물론,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업스트림에 관련된 국내업체들은 더 높은 투자 매력도가 있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2.6.30 기준)